

# “시국 풍자? 그냥 가벼운 코미디”

오는 28일 개봉 영화 ‘게이트’ 주연 맡은 임창정

등장인물 묘사·스토리 전개 등  
국정 농단 사건 연상케 해 화제  
음악·제작도 참여해 눈길



이문식·임창정·정려원·정상훈·이경원(왼쪽부터)

28일 개봉하는 ‘게이트’(사진)는 본격적인 시국 풍자극을 표방하는 영화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김규철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지난 정권에서 권력 핵심부를 겨냥했다가 갖은 불이익을 떠안은 검찰 내 일부 인사들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좌천당하거나 웃을 벗은 정도가 아니다. 규철은 바보가 됐다. 기억을 잃어 자신이 한 때 검사였는지도 모른다. 허뿔은 목소리로 옆집 사는 처자 소인에게 구애하다가 결국 그녀와 함께 금고탈이에 가담하게 된다.

바보인 규철이 집단 도둑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고작 망을 보거나 어수선한 몸짓으로 감시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 정도. 노란색 이소룡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바보를 연기한 임창정을 20일 만났다.

“영화에서 최순실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강남의 어느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건 아니에요.”

‘게이트’는 촬영을 시작하던 지난해 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역사적 평가가 채 시작되지 않은 대형 사건을 실시간에 가깝게, 그것도 코미디 영화에 담는 게 무리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영화 속 캐릭터에는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이 반영됐다. 배우 정경순이 머리에 선글라스를 얹고 의상실에서 ‘갑질’을 한다. 강남 아줌마는 비밀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상 강남 아줌마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

김규철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다. 도둑질에서 그의 역할은 전직 검사 신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검사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었어도 이 야기는 갈다.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얽힌 인물들을 금고탈이 이야기에 엮었을 뿐이다. 국정농단의 구체적 과정은 상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풍자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냥 웃기고 싶었어요.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가벼운 느낌의 ‘도둑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커다란 사건사고들을 겪으면서 작년과 올해를 보냈고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가 완성되는 사이 검찰과 법원에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이에 반해 영화는 관객에게 현실과 결부된 카타르시스를 주지도 않는다. 임창정은 “단죄는 좇불이 했다”며 “영화가 왜 해결을 안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국이 해결됐고 영화는 그걸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처음 시나리오에는 훨씬 노골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반영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한다. 신동엽 감독에게 “제정신이나,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육먹으니까요. 지난 한해 동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완성본 ‘게이트’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나왔다.

임창정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다. 주연에 음악·제작까지 맡으며 공을 들였다.

처음에는 ‘치외법권’(2015)을 함께 했다가 관객수 34만명으로 흥행에 실패한 본 신동엽 감독에 대한 의리로 시작했다. 신 감독은 개명까지 해가며 절치부심하던 차였다.

“처음에는 우정출연 정도 해주자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넘다가, 공동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첫 작품이 ‘게이트’예요.”

‘치외법권’과 지난해 ‘로마의 휴일’(13만명) 등 근작들의 흥행참패에 부담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나 임창정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라면 후회하지 않는다”며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 거예요. 어느 때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칠순 돼서 남우주연상 받고 ‘40대에 영화마다 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요.”

# 조민기, 과거 성추행 의혹에 “명백한 루머”



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가 학생이란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학 측에서 진상조사를 해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와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냈으나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 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 신문과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는 사표가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겸 대학교수인 조민기(사진) 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해 교수직을 상실한 사실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새벽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 조민기(52) 측이 20일 불거진 성추행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민기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학교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민기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돼 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결재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고, 교수직 박탈과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초부터 교내에 조민기에 대한 구설이 떠돌기 시작했고,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내용이 알려졌다”며 “불특정 세력으로부터 언론에 알려졌다는 협박을 받은 조민기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 여부도 생각했으나 가족들

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가 학생이란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학 측에서 진상조사를 해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와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냈으나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 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 신문과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는 사표가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민기의 해명에도 학교 측이 “해당 학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82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조민기는 그동안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왔으며 2010년 청주대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8년째 강단에 섰다. 그는 오는 24일 OCN에서 첫방송 예정인 주말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도 출연한다.

# “나의 꿈은 아이들” 색다른 도전 예능 탄생

내달 3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호동·이수근 콤비 출연

E채널은 ‘익숙한’ 콤비 강호동-이수근의 ‘색다른’ 도전을 담은 새 예능 프로그램 ‘태어나서 처음으로’(사진)를 오는 3월 3일 첫 방송한다고 20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MC들이 인생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첫 경험’을 하고 싶은 ‘의뢰인’과 함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관찰 버라이어티다.

강호동과 이수근 외에 모델 한현민, 가수 강남, 티담 나일, 쇼호스트 이민웅이 고정 출연한다.

6명의 출연진은 전일 촬영을 시작, 각자 댄스와 개인기 등을 선보이며 팀워크를 다졌다.

특히 강호동이 ‘하고 싶은 첫 경험’을 묻자 “아이



들이 돼서 팬들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하고 환호도 받고 싶다”고 밝히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아이들에 도전하면 삶을 배웠다라는 의지도 보였다.

3월 3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창   |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굿모닝 평창                                 |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억류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br>30 해피 시스터즈<br>55 평창 2018               |
| 9  | 00 평창올림픽 라이브  | 00 파도야 파도야<br>40 여기는 평창                   |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   |
| 10 |   |   |                               |   |
| 11 |   | 35 여기는 평창                                 |                               |   |
| 12 | 00 KBS 뉴스 12<br>10 평창올림픽 라이브                            |   |                               | 30 SBS 뉴스<br>40 평창 2018                             |
| 1  | 0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다큐<br>원 배다! 끝나지 않은 도전 (재)<br>50 평창올림픽 라이브 |   |                               |   |
| 2  |   |   |                               |   |
| 3  |   | 00 자동공부백성 위기 2<br>30 TV 유치원               |                               |   |
| 4  |   |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재)<br>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   |
| 5  | 00 KBS 뉴스 10<br>10 평창올림픽 라이브                            | 10 설 기획 1%의 우정<br>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재)     | 00 5 MBC 뉴스 15<br>15 생방송 빛날   | 00 SBS 오뉴스 45<br>45 KBC 저녁뉴스                        |
| 6  | 30 평창올림픽 라이브  | 20 2TV 생생정보                               | 20 MBC 뉴스데스크                  | 00 닥터 365<br>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다<br>55 지식 토크쇼         |
| 7  |   | 40 여기는 평창                                 |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 00 SBS 8 뉴스 / 소트트랙 시상식<br>25 KBC 8 뉴스<br>40 평창 2018 |
| 8  | 25 미워도 사랑해  |   |                               |   |
| 9  | 00 KBS 뉴스 9<br>40 평창올림픽 라이브                             |   |                               |   |
| 10 |   |   |                               |   |
| 11 | 00 KBS 뉴스라인<br>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br>하이라이트                | 00 추리의 여왕 시즌1<br>물아보기 특별판                 | 10 라디오스타 1~2부                 |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
| 12 |   | 10 세상의 모든 다큐                              | 35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br>평창, 우리의 밤 | 20 평창 투니잇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                                | 09:30 물랑  |
|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br>(알프스산맥, 스위스, 용골라우 마터호른) |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br>10:30 한국기행(재)                |
| 06:00 한국기행(재)                               | 10:50 최고의 요리비결<br>(새우달걀찜, 조개탕 오이초무침)                |
| 06:20 세계테마기행(재)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2:00 EBS 정오 뉴스                                     |
| 07:30 띠띠뽀 띠띠뽀(재)                            |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 07:45 뽀뽀뽀 뽀뽀로                               | 12:40 지식채널e   |
| 08:00 땀땀 땀 땀 땀 1~2                          | 12:45 EBS 초대석(재)                                    |
|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 13:40 미래강연 Q(재)                                     |
| 08:45 한글이 야호2                               |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 09:00 똑딱맨                                   | 15:00 마사와 곰   |
| 09:15 두다다(재)                                |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
| 15:45 레전드하러 삼국전                             | 20:50 세계테마기행<br>(타이완, 그 섬에 닿으면 3부<br>역사를 품은 도시 타이완) |
|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 21:30 한국기행<br>(시선기행, 포구에서 3부<br>소와 산책하러요?)          |
| 16:30 한글이 야호(재)                             | 21:50 EBS 다크프라이                                     |
| 16:45 땀땀 땀 땀 땀 1~2(재)                       | 18:00 생방송 특목TV 보너스1~4                               |
|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9:00 몬카르(재)  |
|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br>-화산섬의 비밀                         |
| 17:45 뽀뽀뽀 뽀뽀로                               | 19:30 EBS 뉴스  |
| 18:00 생방송 특목TV 보너스1~4                       | 19:50 장수의 비밀  |
| 19:00 몬카르(재)                                | 20:40 다크 오늘   |
| 22:45 극한직업<br>(그릇을 빚다-옹기와 유기)               |   |
| 23:35 장수의 비밀                                |   |
| 24:25 지식채널e                                 |   |
| 24:30 미래강연 Q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2월 21일(음 1월 6일 甲申)   |
|--|--|
| <b>子</b><br>48년생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60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72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84년생 맹목적이라든가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04           | <b>午</b><br>42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54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66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로 날차리다. 78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90년생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행운의 숫자 : 25, 06 |
| <b>丑</b><br>49년생 현대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61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째로 힘든 형세이니라. 73년생 목표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게 된다. 85년생 균열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4, 22               | <b>未</b><br>43년생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55년생 이목을 끄는 관심사가 생긴다. 67년생 실질적인 제의를 하는 이가 보인다. 79년생 없음을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91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31, 32 |
| <b>寅</b><br>50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62년생 분명하게 절제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74년생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음이나 함부로 발언하여서는 안 된다. 86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6, 31      | <b>申</b><br>44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되는 판세 놓여 있다. 56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68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0년생 체계를 그려치면 행하지 아니하면 못하다. 행운의 숫자 : 85, 92     |
| <b>卯</b><br>51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뮬하지 않을 수 있다. 63년생 계속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75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다보면 자신의 문제도 가닥 잡힌다. 87년생 전체적인 정황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69, 35 | <b>酉</b><br>45년생 날밤이 확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 57년생 잘 살펴보아라. 69년생 듣기에 좋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황이다. 81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차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02, 29         |
| <b>辰</b><br>52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64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 아무런 일도 못한다. 76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88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77, 84        | <b>戌</b><br>46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58년생 구조와 형태가 특이할 것이니 작으 않아야겠다. 70년생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82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12, 66          |
| <b>巳</b><br>53년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다. 65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 하고 있음이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77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89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17, 90    | <b>亥</b><br>47년생 투명해야만 상하간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59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71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83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26          |